

# ♡2018-1 성적우수역량강화장학 학점이수 기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개설과목	영어회화2 (2) / 교필 기초실무영어(2) / 교필 일반언어학의이해(2) / 기선 영미명문읽기(2) / 전선 영문법2(2) / 전선 영작문2(2) / 전선	영미희곡입문(2) / 전선 영어통번역연습(2) / 전선	비즈니스영어프레젠테이션(2) / 전선 영어의어제와오늘(3) / 전선 영어와사회 (3) / 전선 미국시의이해 (3) / 전선 19세기영국소설 (3) / 전선 스피킹연습(2) / 전선	현대영국소설 (3) / 전선 비즈니스영작문 (2) / 전선 영어학특강 (2) / 전선 캡스톤디자인2 (1) / 전선 영미문학비평 (3) / 전선
학점이수기준	12학점 개설, 6학점이상 수강	해외현장학습 과목 제외 4학점 개설, 2학점 이상 수강	16학점 개설, 전공 2과목 이상 수강, 총 15학점 이상 이수	11학점 개설, 전공 2과목 이상 수강, 총 12학점 이상 이수
공통기준	직전학기 평점 3.5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대상 : 국내,외 교류학생, 최종학년, 산학협동과정 참가자)			

§반드시 **2017년 외국어 점수만** 가산점 가능합니다.

# 영어영문학과 성적우수역량강화 장학생 선발기준표

## (기준일자 :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 1. 평가항목 및 내용

평가 영역	평가 항목	평가내용	평가 점수	비고
필수	성적	평균평점 석차 (성적환산표기준)	70	- 2페이지 참고
자유	취업	1.토익점수 2.자원봉사 활동 3.취업프로그램 참여도	20	1. 외국어능력정도(토익, 토플, 텡스 점수) - 환산 : 취득점수/990*20 (20점 만점) *토플, 텡스 등 기타 외국어능력 시험점수 기준표에 근거해서 환산 - 모의토익 인정 - 당해년도 성적만 인정 - 미제출자 : 0점
			5	2. 자원봉사 활동 - 자원봉사활동 1회당 1점 (최소 5시간 이상 활동한 증빙서류 첨부)
			5	3. 취업프로그램 참여도 - 취업관련 행사 참여 (증빙서류 첨부 필요) - 2회 참여: 5점 ,1회 참여: 3점
총 점			100점	

※ 동점자 처리기준 : 총점이 동점일 경우, 성적 상위자를 장학생으로 선발

※ 학과 내규에 의거하여 제외되는 자

- 1) 1,2학년 : 해당 학년 개설전공학점의 절반 미만 수강자
- 2) 3,4학년 : 전공과목 2강좌 미만 수강자 (전공 2강좌 이상 수강하여야 함)
- 3) 인턴십참가자 성적반영방법 : 인턴십참가 학생 중 장학생 선발대상자는 순위에 상관없이 500,000원 지급
- 4) 캐나다 해외현장학습 참가자 성적반영방법 : 직전학기성적 (해외현장학습 성적 반영)

## 성적우수역량강화장학 성적환산기준표

학부(과)명 : 영어영문학과

평점	환산점	평점	환산점	평점	환산점	평점	환산점	평점	환산점
4.5									
4.49		4.29		4.09		3.89		3.69	
4.48		4.28		4.08		3.88		3.68	
4.47	70	4.27	62	4.07	44	3.87	46	3.67	38
4.46		4.26		4.06		3.86		3.66	
4.45		4.25		4.05		3.85		3.65	
4.44		4.24		4.04		3.84		3.64	
4.43		4.23		4.03		3.83		3.63	
4.42	68	4.22	60	4.02	42	3.82	44	3.62	36
4.41		4.21		4.01		3.81		3.61	
4.40		4.20		4.00		3.80		3.60	
4.39		4.19		3.99		3.79		3.59	
4.38		4.18		3.98		3.78		3.58	
4.37	66	4.17	58	3.97	40	3.77	42	3.57	34
4.36		4.16		3.96		3.76		3.56	
4.35		4.15		3.95		3.75		3.55	
4.34		4.14		3.94		3.74		3.54	
4.33		4.13		3.93		3.73		3.53	
4.32	64	4.12	56	3.92	48	3.72	40	3.52	32
4.31		4.11		3.91		3.71		3.51	
4.30		4.10		3.90		3.70		3.50	

2017년 08월 09일

학과장 성명 :            심 민 수

